

최근 3년간 서울의료원에 내원하여 신장조직검사로 확진된 원발성 사구체 질환자에서의 Nephrogenic Technology를 이용한 유전자적 예측인자 분석 및 영양지표에 따른 예후

서울의료원 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서인석·임지환·남양훈·최준혁·윤수진·고재기·신석호·이윤경[†]·구명숙*·문병철[‡]

배 경 : 아직 명확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말기 신질환은 원인 질병의 조기 진단과 신기능의 저하 단계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특정 환자가 말기 신질환으로 진행할 위험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초기에 환자의 예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인의 원발성 사구체 신염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시대적 의학적 요구에 따라, 최근 3년간 본원에 내원하여 신장조직검사로 확진된 원발성 사구체 질환자에서의 유전자적 예측인자 분석과 영양지표에 따른 예후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저자는 올해 본원에 내원하여 임상적으로 유의한 신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원 방사선과에서 초음파유도신생검 (Sono-guided Renal Biopsy)을 시행하였고, 검체를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대학교병원 진단병리과에 수탁검사를 의뢰하여, 이들 중 사구체 질환으로 확진받은 환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2002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본원에 내원한 환자 중 신생검을 시행하여 사구체 질환으로 확진받은 환자들과, 과거에 타원에서 신생검으로 사구체 질환을 확진받고 현재 본원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인 환자들까지 포함하였다. 이들 가운데 대한신장학회에서 시행 중인 유전자검사에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혈액 18cc를 채혈하여 SCL 검사기관에 수탁검사를 의뢰하였고, 이후 Seoul Clinical Genomics로부터 ACE insertion/Deletion에 대하여 DASH로 검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대상 환자들에 대해 알부민과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일반화학검사를 시행하고 영양지표에 따라 신장조직검사 결과도 비교하였다.

결 과 :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 15일까지 본원에서 신생검을 통해 사구체신염으로 확진된 환자는 총 68명이었으며, 그 중 원발성 사구체 신염은 53명이었다. 사구체 신염의 종류에 따라 IgA 신병증 33명, 막성사구체신염 9명, 미소성변화와 기저막 박막성 사구체신염이 각각 3명씩이었고, 막성증식성사구체신염 2명, 비특이적인 사구체 경화증 2명, 초집분절사구체경화증 1명으로 IgA 신병증이 가장 많았다. DASH 방법으로 ACE insertion과 deletion을 검사한 결과는 DD/ID/II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영양지표로 선택한 알부민은 혈청농도 2.5 미만과 이상을 비교하였고, 콜레스테롤은 200이하와 초과를 비교하였다. 이들 모두에게 적절한 약물요법을 시행하여 추적관찰 중에 있으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말기 신질환자로 악화되어 신대체요법을 시행한 자는 모두 8명이다.

결 론 : 좀 더 적극적인 원발성 사구체 신염 발굴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무료진료나 상담 등에서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질환 의심자에게는 가능한대로 유전자 검사와 신장조직검사로 확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확진된 사구체질환자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간의 꾸준한 의학적 추적관찰로, 현재 밝혀진 유전학적 인자에 따른 예후와 영양학적 인자에 따른 예후를 비교함으로써, 말기 신질환으로의 진행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인자들을 선별하고 해당 인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